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7, No. 2, 222-233, August 2022
pISSN 2586-5013
eISSN 2636-0926
https://doi.org/10.33527/nhi2022.27.2.222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 질적연구

김혜옥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Pharmacology Learning Clubs: Qualitative Research

Kim, Hae O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tensely explore,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 students who were sophomores at the college of nursing, had experience in a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in-depth.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 to May 31, 2018, and were analyzed with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method of Elo and Kyngäs (2008). **Results:**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the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were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seven categories, and 26 sub-categories. The four main categories were 'First experience of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Overcoming fear of pharmacology course', 'Building a sense of camaraderie and solidarity', "Interest and reward for learning pharmacology'. **Conclusion:** A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activities, the prejudice that pharmacology was difficult disappeared, and a sense of camaraderie and solidarity with the team members was formed.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developed an interest in pharmacology and felt rewarded for the learning circle activities.

Key Words: Learning circle,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education,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및 빅테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보건 의료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1], 대학 교육에서도 지식 공급이 교수자 중심에서 소비자인 학생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2]]. 또한, 사회 환경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간호사의 역할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3]. 간호 교육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교육목표, 학습 성과 설정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전문가적 실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4]. 대학에서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지식을 추구하는 학습공동체에 관한 관

주요어: 학습동아리, 질적연구, 간호교육, 간호대학생

Received Jul 17, 2022 **Revised** Aug 9, 2022 **Accepted** Aug 10, 2022

Corresponding author: Kim, Hae Ok,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 51767, Korea. Tel: +82-55-249-6346, Fax: +82-505-999-2140, E-mail: hok503@kyungnam.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심이 증대되고 있고[5], 특히, 간호 이론 교육에서는 '통합 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 따라서 통합 교육 과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각 대학은 능동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학습'과 '동아리'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5].

학습동아리는 특정 학습에 흥미 및 관심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구성된 소규모 집단으로, 주로 학습에 대해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며, 팀원의 발전 및 학습공동체 구현을 추구한다[7].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8]. 이런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의료인의 양성을 위해서 간호 이론 과목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보다, 구성주의 관점의 입체적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9].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단순한 강의식 수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 방법의 활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간호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경험을 하는 것이 간호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10].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 또는 팀 조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의 전문성 개발 촉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한다[11].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습한 경험은 전공과목, 임상 실습 및 취업 후 임상 직무에 필요한 학습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아리 참여에 관한 양적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참여 활동은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및 흥미를 높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학업 성취도를 거둘 수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한다[12]. 약리학수업과 관련된 질적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찰일지 작성이 약리학 수업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반성적 사고와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다[13]. 약리학 수업에 대한 사전학습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약리학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약리학 지식을 제대로 쌓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후 전체적인 간호 전공과목 및 임상 실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그러나 현재까지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고, 그들의 경험을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기존의 이론적 범주와 관점을 대입시키지 않고,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질적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Elo와 Kyngäs[15]의 귀납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인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의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동아리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및 공동 학습을 완성해 가는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 심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4팀(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대학 2학년 재학 중이며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이 있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총 15명이다. 참여자의 기본조건은 C시에 소재한 K대학 간호학과에 개설된 약리학 과목 수강을 종료하였고,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참여했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질적자료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16]에 따라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풍부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를 선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모집 공고문을 접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로 재학생 8명, 복학생 5명, 편입생 2명으로 총 15명으로 개별

면담으로 시행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2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개인 면담, 심층 면담, 메모 및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로 수집된 내용 및 면담자료는 익명화하여 처리할 것임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면담 장소로 학생들이 원하는 조용한 학교 근처 카페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고 비밀보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개별 면담을 1회(30~60분) 실시하고, 참여자들의 허락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내용은 처음에는 개방적이고, 반구조적 질문형식으로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대화,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하였다. 면담자료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개별 면담이 종료된 당일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필사하였다.

참여자의 개별 면담에 사용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난 팀원의 학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긍정적 혹은 부정적)은 무엇입니까?'
-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 전과 후 달라진 학습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연구로 Elo와 Kyngäs [15]가 제시한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주요 진술문 확인 단계로써, 연구자는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필사였다. 그 후 필사된 모든 진술문을 읽고, 원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다. 원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담 때 작성 한 현장 노트와 메모를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에 관련된 의미가 있는 문장을 확인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핵심 진술문을 문장과 문단 단위로 선택하여 줄간(line-line) 분석 통해 1차 개방 코딩을 하였다. 둘째, 개방 코딩 단계로 참여자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에 대한 주요 진술문과 1차 개방 코딩을 바탕으로 코드 및 코딩지를 작성하여 제목(heading)을 붙였다. 셋째, 범주 생성 및 추상화 단계로 도출된 개방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이나 문구의 비슷한 세부 코드들을 그룹화(grouping)하였다. 범주를 더 높은 차원의 제목(heading)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확인하여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하위범주(sub-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하위범주(sub-category)는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및 확인하여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범주(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범주는 다시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대범주(main 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둘째와 셋째 단계에서는 질적연구 전문가 교수 1명과 같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분석 결과 중 이견이 있는 경우 토의를 거쳐 조정하였고, 범주 생성 및 추상화도 함께 모여서 진행하였다. 필사된 개인 면담 기록지는 A4용지 75장 분량이었다.

5.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문화기술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질적 논문으로 질적 내용분석, 문화기술지 및 현상학적 연구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다. 현재 부울경 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 질적연구 콜로키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질적연구 학회 회원으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질적연구의 분석 방법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노력하면서 질적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 준비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재 간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하고 있고, 약리학 과목에 대한 강의경력은 10년 이상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6.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은 Guba와 Lincoln [17]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여 확보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 중인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개인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내용 중 불충분한 것은 추가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내용을 3회 이상 읽었으며, 분석내용 또한 3회 이상 점검한 후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시간을 두고 다시 반복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경험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참여자 3명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 2명에 대해서는 확인 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개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은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료를 자세히 기술하였고, 범주화 과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질적연구 전문가 교수 한 명에게 자료 분석 전 과정에 대한 조언, 비평 및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자료에서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면서 수정작업을 거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립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가정, 편견 등을 가지지 않도록 주요 진술문의 도출과 개방 코딩 및 범주화 과정에서 자료들을 메모하고 상호 비교하였으며, 연구자들의 해석이나 분석 결과를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기술 내용을 연구 결과에 직접 인용하였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460-A-2017-065)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간호대학생이므로 연구자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없도록 약리학 수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연구자가 아닌 연구보조원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개인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면담 진행 과정, 익명성 보장, 철회 가능성, 약식동의서(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면담 시 녹음내용 녹취에 관한 것, 연구목적에 대한 자료 활용 및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 면담 및 추가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수업 및 성적과 관련 없는 학기에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 및 필사를 하였다. 참여자로 수집된 자료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데이터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 심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간호대학생이다. 성별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r)	>21	8 (53.3)
	21~25	5 (33.3)
	40~48	2 (13.3)
Sex	Male	6 (40.0)
	Female	9 (60.0)
Grade	3rd	13 (86.6)
	4th	2 (13.4)
Academic performance	1.5~2.4 (Low)	0 (0.0)
	2.5~3.4 (Middle)	3 (20.0)
	3.5~4.5 (Advanced)	12 (80.0)
Motivation for choosing a department	Aptitude and interest	8 (53.3)
	Advice	2 (13.3)
	Occupation	5 (33.3)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0 (0.0)
	Moderate	3 (20.0)
	Satisfaction	12 (80.0)
Learning club experience	Yes	2 (13.4)
	No	13 (86.6)
Study style	Alone	14 (93.3)
	Together	1 (6.7)
Academic course	Students	15 (100.0)

은 남자 6명(40.0%), 여자 9명(60.0%)이었고, 재학생 총 15명이고, 연령은 21세 이하 8명, 22~25세 5명, 40~48세 2명이다. 이전의 학습동아리 경험 유·무에 있어 '있다' 2명(13.3%), '없다' 13명(86.7%)이었다. 동아리 학습활동 운영은 매주 약리학 수업을 마친 후 주 1회, 시간은 60분~90분 정도였고, 모임은 총 13회, 온·오프라인으로 학습활동을 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참여자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기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분류해서 26개 하위범주, 7개 범주, 4개의 대범주로 도출되었다. 4대 대범주는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첫 경험',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대감 형성' 및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2. 대범주 1.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첫 경험

참여자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은 대부분 처음이었다.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첫 경험으로는 약리학에 대한 호기심, 친구의 추천, 새로운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새로운 경험 축적하기 등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범주 1에서는 '약리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및 '약리학에 쉽게 접근하기'의 2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약리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후 다양한 동아리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약리학 학습동아리는 처음이면서, 대부분 약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에 있어 다양한 학우들과 함께 학습활동을 하면 재미도 있을 것이고, 약리학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팀원과 새로운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습동아리를 이전에는 해보지 않아서요. 새로운 경험 쌓는다는 생각과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학습동아리 경험도 없고,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참여자 2)

Table 2. Experience Participating in a Pharmacology Learning Club

Main category	Category	Sub-category
First experience of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To genera intteerest and motivation for pharmacology	· Having curiosity about pharmacology ·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 Interest in new social activities · Accumulating new experiences
	Easy access to pharmacology	· Reducing the psychological burden of unfamiliar subjects · Various learning methods · Intent to study pharmacology with ease
Overcoming fear of pharmacology course	Exploring effective learning methods	· Learning to remember drug names easily · The transition from simple memorization to understand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 methods · Coordinating complex learning content with team members · Taking responsibility · Creating regular study habits · Motivation for one's study · Preview and discuss after review
	Reaching common learning goals	· Various learning activities with team members · Learning from diverse opinions and feedback
Building a sense of camaraderie and solidarity	Receiving diverse opinions from team members	· Resolving the difficulty of coordinating time with team members · Resolving feedback difficulties among team members
	Developing the ability to collaborate	· Building good rapport with team members · Promoting problem-solving skill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 Empathizing and comforting each other about difficult learning · Encouraging each other during exams · Realizing that I'm not the only one struggling
Interest and reward for learning pharmacology	Recognition of the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 Reflection on ineffective learning methods ·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learning circle · A better understanding of pharmacology

간호사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간호사와 함께, 또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간호업무를 하잖아 요. 이런 것을 보면 학습동아리 또한 혼자서 공부가 아니라, 함께 학습하는 활동이므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1)

2) 약리학에 쉽게 접근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약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약물을 외워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례에 따른 약물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약리학 과목은 거부감이 많은 과목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리학은 기초 과목이고, 임상 실습 및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임상 실무에서 약물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참여자들은 약리학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 번도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 과목이라 많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되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5).

약리학 과목이 무엇을 학습하는 과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많은 약물에 대 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학습함으로써 공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자 5)

3. 대범주 2.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약물에 대한 학습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전에 가진 약리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팀원 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학습을 하고 있었다. 대범주 2에서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의 탐색' 및 '공동의 학습 목표 성취하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효율적인 학습 방법 탐색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탐색으로 팀원들을 통하여 약물 이름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익히기, 혼자서 하는 기존의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약물의 원리 및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학습을 하고 있었다. 팀원이 꼼꼼히 정리한 노트를 보고서 따라 작성하기도 하고, 팀원이 하는 학습법을 자신의 학습법과 비교해 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였기에 집중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한다. 또 팀원 서로 간의 눈높이 맞추어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가 잘 되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고, 예습 및 복습 내용을 토론할 수 있어 좋은 학습동아리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학습동아리 활동 시간에 팀원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고, 중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팀원들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자기성찰도 하고 있었다.

동아리 구성원 한 명이 저에게 약 이름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약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

약물의 기전, 상호작용 등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좋아요. (참여자 14)

자기 공부는 자신이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참여자 9)

친구는 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고 본인이 이해한 것과 암기 방법 등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참여자 6)

2) 공동의 학습 목표 성취하기

참여자들은 한 학기 동안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팀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학습 및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속에 학습하는 학습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성취해 가고 있었다. 또한,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학습활동에 빠지지 않았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팀원 간에 서로 궁금한 약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서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혀가고 있었다. 약리학책을 위주로 학습을 하면서 이 약물이 어느 질환에 작용하는지, 약물의 작용기전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팀원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성취해 가고 있었다. 또한, 약리학 과목은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3~4학년 임상 실습 때, 전공과목 및 졸업 후 간호전문가로서

약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약리학 과목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공부를 보다 능률적이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4)

학습동아리 하기 전과 달리 이제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럼없이 팀원에게 약물 작용 중의 하나인 길항작용에 물어보았어요. 팀원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 주어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었어요. (참여자 4)

4. 대범주 3.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원 간 상호이해와 배려를 통하여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약리학에 관한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서로 협력학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대범주 3에서는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하기'와 '협력하는 능력의 신장'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하기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특성상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학습동아리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학습동아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향, 선호하는 학습법, 성적 및 개인 스케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조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팀원 간의 시간 조율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별로 학습할 분량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정하고, 그 분량을 책임지고 학습해 와서 동아리 모임 날에 각자 맡은 학습 분량을 설명해 주어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학습활동을 하면서, 꼭 모여서 학습해야 할 내용 이외의 회의 및 간단한 토론은 카카오톡으로 그룹을 만들어 상호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 조정에 대한 갈등을 줄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별 학습역량에 대한 성취 기준이 다르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팀원 간의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팀원이 여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학습활동을 하다 보니 각자 할 일도 많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간 조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그룹 회의를 하여 상호 정보 교류를 하여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조정도 가능했어요. (참여자 5)

공동으로 해야 할 학습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해 오는 팀원에게 수정해야 할 부분을 기분 상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이 잘되지 않아 힘들었어요. (참여자 11)

2) 협력하는 능력 신장

간호학과 학생들은 서로 친한 학생들끼리만 정보공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팀원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많고, 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참여자들은 편한 마음으로 질문도 할 수 있는 스스럼 없는 토론방 학습 운영이 좋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동아리를 하면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팀원 간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끼리 교류를 하였지만, 동아리 팀원 간 학습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관들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잘못 받으면 다른 학우들에게 창피를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약리학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약물 간호과정에 있어 팀원과 여러 번의 의견을 검토하고, 서로 협력하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카카오톡 방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응원 및 격려를 하여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었다. 약리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 교류를 하면서 같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동아리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정보를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제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내 주변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참여자 5).

공부를 하다 지쳐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참여자 3)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공부 내용을 동아리 팀원이 그것을 알고 나에게 알려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

요. (참여자 7)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만큼 내가 맡은 영역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또한, 나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 라, 친구들도 나와 같이 느끼고 있어서 안심이 돼요. (참여자 6)

5. 대범주 4.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약리학 과목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학습동아리의 활동 시간 증가와 더불어 이 과목이 어렵다는 선입견이 사라지면서,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이 조금씩 쉬워지고, 흥미와 보람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범주 4에 대한 범주로 '약리학에 대한 이해 증진', '비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한 성찰' 및 '학습동아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1)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대한 재인식

참여자들의 동아리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질문도 하고, 문제를 내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약물에 대해서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학습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팀원의 학습 방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팀원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을 실행하기를 위해 동아리 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팀 상황에 맞게 너무 어렵지도 혹은 쉽지도 않게 잘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운영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약리학이 조금씩 쉽고 친근함이 생겼어요. (참여자 1)

팀원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을 계획하여 실천하였고,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공부에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참여자 14)

우리는 미래에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전문직 간호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학습동아 리 활동은 단순히 학습의 목적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학습활동을 한 것이 또 다른 경험을 쌓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9)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은 4가지 대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및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등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첫째,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에서는 참여자는 약리학 학습동아리에서 동아리 팀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리학을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려운 약리학을 쉽게 공부하기 위하여 및 친구의 권유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생리학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참여 활동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학습에의 흥미를 준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났다[12]. 참여자는 간호학과 입학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영어로 된 생소한 긴 약 이름 및 다양한 약물 기전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병원미생물 수업에 대한 한계와 용어의 생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8],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는 처음에 가진 약리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탐색해 가면서, 약리학 과목 특성상 많은 약물 이름 및 기전을 알고 적용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익히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아리에서도 차별화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암기가 많은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학습하도록 하여[1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매주 모임을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정규적인 모임을 하면서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가지게 되어 학업이 향상되었다. 약리학 성찰일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글쓰기의 어려움, 시간 소모 등으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하게 성찰하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여 성찰일지의 유용성을 알아가고 있어[12]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팀원들과 함께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방

법을 익히면서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가 능동적 학습 태도로 바뀌면서, 바로바로 하는 학습 습관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는 학습동아리 유형 중 전문 탐구형 학습동아리의 유형과 학습원리[20]로 일정한 수준의 약리학에 지적 능력을 공유한 참여자이고, 약물 유형별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 토의와 탐구를 위해 각자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학습 목표를 계획하고 팀원끼리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도 학습동아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촉진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19], 공동체와 관련된 목표와 다양한 관계적 역동을 이해하고 구성원이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1]. 참여자는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속에서 학습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팀원들에게 묻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보다 친구에게 질문하기가 훨씬 쉽고, 편하다는 점과 눈높이와 경험이 비슷한 또래 친구가 설명하여 주는 경우 이해가 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고[22], 팀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지애가 확고해지면서 학습자가 책임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고[23], 팀원들이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24],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 통하여 서로 간에 갈등 요인을 해결해 가면서 이해와 배려 속에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팀원 간에 학습동아리 운영 시간 조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활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공동의 학습활동을 하고 있어[19], 본 연구와 결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습동아리 활동 중 미흡한 학습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추후에 팀원과 학습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역할에 대한 분배, 학습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갈등 요소에 대한 대안을 미리 설정하고, 진행할 필요성을 알아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학습동아리에서 목표 설정과 역할분배를 하고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였고[25], 학습동아리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하여[26],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동아리에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팀 기반 학습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토론 시 상호 간 의견 대립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갈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협력하고 있어[27]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시험을 잘못 본 팀원에게 '괜찮아 다음에 잘 할 수 있어' 같은 용기를 주면서 팀원 이상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팀원 간 서로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할 수 없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생의 학습동아리 연구에서도 동료 이상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대인관계 능력, 책임감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고[25], 학습동아리는 단순한 학습활동을 넘어 깊은 유대관계로 발전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개발하는 기회를 체험한다는 것은[19],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참여자는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가지면서 약리학 지식을 습득해 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도 학습동아리는 협동학습을 통해 지식 공유활동이 일어나는 과정[25], 다른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상호작용 과정[28], 지식공유 활동은 학습동아리의 핵심적인 활동[29]이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아리를 통한 임상 배치에 대한 상호주관성과 팀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에서도 학습동아리가 학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중요한 임상 능력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30].

이처럼 간호대학생부터 학습동아리 활동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래에 임상 현장에도 간호사 학습 조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다른 과목 강의, 시험, 개별 과제 및 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팀원들과 함께 학습동아리 한 경험을 토대로 학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 및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토론하면서 해결해 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습활동 참여를 통해 팀원을 통한 새로운 학습방식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자신이 한 학습 방법을 성찰하고, 다시 설계하면서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팀원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실행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간호대학

생의 팀기반 선행연구에서도 팀기반 학습이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어[3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도 대학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팀원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5],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심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한 과목, 한 학년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대학, 전공과목, 학년을 포함한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을 통하여 약리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및 두려움과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하여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탐색한 것으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 방법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참여자 15명이 경험한 대범주는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및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등 이었다. 참여자는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경험을 통하여 약리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느끼면서 약리학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그들의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면서 약리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팀원들과의 동료애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약리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약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임상 실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의 약물 투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에 있어 저학년부터 자율적으로 기초 간호 과목에도 학습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학습역량의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약리학 학습동아리에서 익힌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고학년 전공과목 및 팀 과제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약리학 학습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비교과목 개발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Jung HH, Choi YI, Lee SW.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ealth industry paradigm. KHIDI Brief. Osong: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6.
2. Jho HK.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asks of school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017;36(3):286-301. https://doi.org/10.15267/keses.2017.36.3.286
3. Distler JW.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07;7(1):53-59. https://doi.org/10.1016/j.nepr.2006.08.003
4. Gruppen LD. Competency-based education, feedback, and humility. Gastroenterology. 2015;148(1):4-7. https://doi.org/10.1053/j.gastro.2014.11.021
5. Song YH.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llective efficacy, knowledge sharing, satisfaction in a university study circl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1;42(3):179-209.
6. Brauer DG, Ferguson KJ. The integrated curriculum in medical education: AMEE Guide No. 96. Medical Teacher. 2015;37(4):312-322. https://doi.org/10.3109/0142159X.2014.970998
7. Oh HJ.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learning community and its realizing principle. Journal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2005;11(1):23-41.
8. Merriam SB, Leahy B. Learning transfer: a review of the research i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2005;14:1-24.
9. Merisier S, Larue C, Boyer L. How does questioning influence nursing students' clinical reasoning in problem-based learning? A scoping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2018;65:108-115. https://doi.org/10.1016/j.nedt.2018.03.006
10. Hong S, Kim S. A integrative review of learning experience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2):111-122.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11
11. Lee SY. How to improve the study circles in university. Journal Namseoul University. 2005;11(1):211-238.
12. Cha NH, Kim YK. Effects of self study circle activit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659-66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59
13. Lee EJ, Kim HO, Park EA.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in pharmacology course: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5):279-29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279
14. Andrew S, Salamonson Y, Weaver R, Smith A, O'Reilly R, Taylor C. Hate the course or hate to go: semester differences in first year nursing attrition. Nurse Education Today. 2008;28(7):865-872. https://doi.org/10.1016/j.nedt.2007.12.007
15. Elo S, Kyngä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2(1):107-11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569.x
16. Morse JM, Field PA.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Cheltenham: Nelson Thornes; 1995.
17.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1. p. 383-410.
18. Han MS, Kim MS. Experience in microbiology course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8;20(4):244-251. https://doi.org/10.7586/jkbns.2018.20.4.244
19. Kang KL. A study on the analysis of learning process of learning commun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4;8(6):61-110.
20. Lee JH, Hong SH, Park SO. A study on the pilot support plan for adult women's learning club activities. Women's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21. Youn CG, Lee HS. Exploring the meaning and entry process of a commun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 university student's club.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4;20(4):81-113.
22. Ha JH. A study on effective teaching & learning methods through reciprocal peer tutoring in ethics classroom of high school. Journal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2006;22:257-284.
23. Jung SH. A study on learners' experiences in reciprocal peer tutoring-based study groups.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16;24(2):25-53. https://doi.org/10.18230/tjye.2016.24.2.25
24. Son HM, Hong YK, Kim YH.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a voyage to find the authentic nurse of pre-registratio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69-82.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69
25. Yune SJ, Park KH. Analysis of reflective essays on the learning community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18(3):167-173. https://doi.org/10.17496/kmer.2016.18.3.167
26. Moon YS. A case study on the group dynamics shown in the process of learning circles' growth [master's thesis]. G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4.
27. Kim H.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team-bas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9):30-41. https://doi.org/10.5762/KAIS.2018.19.9.30
28. Baek YJ, Kim ES. Individual, structure and relational char-

acteristics and knowledge sharing within CoP.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2008;9(2):63-86. https://doi.org/10.15813/kmr.2008.9.2.004

29. Hyun YS, Cho D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knowledge sharing in learning communities: testing the non-linear model among tie density, centralization and knowledge sharing.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09;15(3):189-212.
30. van de Mortel T, Billett S, Armit L, Frommolt V, Mitchell C, Mitchell M, et al. Developing intersubjectivity and teamwork skills through learning circles on clinical placement: a mixed methods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21;56:103214. https://doi.org/10.1016/j.nepr.2021.103214
31. Lim SH.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anatomy subject for biological nursing scien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0):7098-7108.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7098